NH투자증권

LG전자 (066570.KS)

가전 제품 경쟁력과 하반기 수요 개선 긍정적

Analyst 이규하 02)768-7248, kyuha.lee@nhqv.com

견조한 실적 이어질 것

글로벌 매크로 둔화 영향으로 가전 등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제품 경쟁력, 볼륨존 공략, 구독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적 달성. 이러한 트렌드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하반기 매크로 개선에 힘입어 가전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 전망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354억원(-11% y-y)을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 하회. 가전 실적은 양호했지만 LCD 패널 판가 상승에 따른 TV부문 이익률 감소, 자동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성장세 및 마진 둔화가 주된 원인

2분기에는 영업이익 8,932억원(+20.4% y-y)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가전부문의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림픽과 유로2024 등 스포츠 이벤트 효과로 TV 판매가 개선되며 전년비 이익 개선 전망. 다만, 글로벌 자동차 수요 약세로 전장부문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하반기 가전 수요 회복 전망, 중장기 성장성도 확보

본격적인 실적 확대는 가전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전 수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낮아진 재고 영향으로 가전제품 출하량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전장부문의 성장성 회복, 전기차 충전사업과 로봇, XR 등 첨단산업으로의 매출 다변화가 기대되어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LG전자 1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P					2Q24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20,416	19,998	20,709	23,104	21,096	3.3	-8.7	21,026	21,251	20,259
영업이익	1,497	742	997	313	1,335	-11.0	325.7	1,482	1,287	893
영업이익률	*7.3*	*3.7*	*4.8*	*1.4*	*6.3*			*7.1*	*6.1*	*4.3*
세전이익	934	386	649	-99	978	5.5	흑전	1,137	997	686
(지배)순이익	471	162	385	-306	475	35.2	흑전	735	580	393

자료: LG전자,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15% 초과
   - Hold: -15% ~ 15%
   - Sell: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82.4%	17.6%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공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LG전자'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LG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